

점찰수행을 통해 본 신라 초기 지장신앙 양상

Aspect of Early Sila's Ksitigarbha belief through the Jeomchal

저자 (Authors)	이경란 Lee, Kyong-Ran
출처 (Source)	동북아 문화연구 61 , 2019.12, 27-43(17 pag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61 , 2019.12, 27-43(1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5732
APA Style	이경란 (2019). 점찰수행을 통해 본 신라 초기 지장신앙 양상. 동북아 문화연구, 61, 27-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9 10:0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점찰수행을 통해 본 신라 초기 지장신앙 양상

이 경 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제2장. 원광의 점찰수행 |
| II. 지장신앙의 개요와 말법사상 | IV. 지혜스님의 점찰법회 의미 |
| III. 원광의 지장신앙 수용과 점찰수행 | V. 맺음말 |
| 제1장. 『점찰경』의 지장신앙 | |

I. 머리말

불교사상 중에서 지장신앙은 관음신앙과 더불어 대중과 가장 친밀한 사상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장신앙이 처음부터 대중 속에서 태동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출가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지장신앙 역시 승려를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토속문화와 깊이 결합하면서 포교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전개·발전되었다. 오늘날에도 지장신앙은 빈번하게 토속종교와 결합된 신앙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죽음과 관련된 천도의식에서 지장보살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발달한 지장신앙이 신라에서 처음으로 수용되고 전개될 때 어떤 방향에서 수용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장신앙의 첫 태동기는 7세기 원광법사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삼국전쟁이라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불안한 사회요소가 팽배해 질 무렵 원광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원광이 들여온 지장신앙은 그가 점찰보라는 계를 조직하여 참회실천을 하였다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원광에 의한 지장신앙의 수용은 말세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 지장신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신앙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그 실천 방법이 용이해야하고, 기복적 성향이 강했을 때 대중화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신라사회에 고유한 토속사상이 뿌리 깊었고, 원광의 전기에서도 그러한 마찰이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구병이나 치병과 같은 성격이야말로 신라의 대중들에게 이입될 수 있는 신앙으로

*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원광이 들어온 지장신앙은 그러한 기복적 요소이기보다 지독한 자기성찰의 수행수단으로 들어왔다는 특징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초기수용의 지장신앙은 대체로 원광에 관한 점찰보를 중심으로 선학들의 연구가 축적되어있다. 선구자적인 연구로 정병조는 6~7세기의 불교계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점찰보를 행한 원광으로 보면서 신라지장신앙과 점찰예참의 형식 및 발전은 진표로 보고, 한편으로는 점찰을 종교적 의식이 아닌 놀이형식으로 파악하였다.¹⁾ 원광에 대한 생애 및 행적의 연구로 원광이 활동한 진평왕대의 역사기록을 토대로 안홍과 원광의 유학출발과 귀국시기에 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과 가솔사의 위치비정에 대한 논고가 있었다²⁾. 그리고 원광이 중국에서 배우고 강의한 유식학과 여래장사상 등의 대승교학 측면에서 연구하였다.³⁾ 또한 원광의 일대기를 고찰하면서 점찰보의 성격을 대승교학의 높은 범문보다는 업장소멸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교화했다고 서술하고 있다.⁴⁾ 지장신앙의 사상적 연원인 대승보살사상과 정업소멸사상, 이류중행사상에 대해 살피면서 교리에 의한 지장신앙 태동의 이념인 자업자득, 업장소멸과 같은 대승불교관을 살폈으며,⁵⁾ 그 외 원광이 수나라 유학시기 접했던 삼계교의 성립·배경과 지장신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⁶⁾ 지장보살신앙의 전개 양상을 논하며 한국과 중국의 각 특징을 분류하며 역사적인 초기 수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⁷⁾ <성모선도수희불사>조의 점찰법회 특징을 고찰한 최근의 논고도 있다.⁸⁾

대부분의 논고는 『삼국유사』의<원광서학>조를 중심으로 『삼국사기』와 일연이 참고했다고 하는 『속고승전』, 『고본 수이전』, 『해동고승전』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원광에 의해 신라 지장신앙이 수용되었다는 중요성과 그 사상, 당시 신라 토속종교와의 갈등 등을 살핀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반면, 그에 의해 수용된 지장신앙 양상은 불교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원광이 들어온 대승사상 중에서 지장신행은 대중화가 아니라 특수계층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수행을 위한 지장신앙이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신행이 대중화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불교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장신앙이 우리나라 불교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신앙, 또는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그 시작이 어떠한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지장삼부경에 속하는 『점찰선악업보경(이하 점찰경)』을 중심으로 원광의 행적을 따라가며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병조(1982), 『신라시대 지장신행의 연구』, 『불교학보』 제19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 327-344; ____ (1983), 『신라법회의식의 사상적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 pp.125-137.
- 2) 신종원(1992),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pp.149-171; 박광연(2002),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pp.111-140.
- 3) 박미선(2007), 『점찰경의 성립과 그 사상』, 『역사와 실학』 32, pp.247-274.
- 4) 김복순(2006),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 28, pp.255-278.
- 5) 김태훈(2010), 『한국 지장신앙의 사상적 연원』, 『한국종교』 34, 원광대학교, pp.203-232.
- 6) 홍재성(2011), 『地藏思想과 삼계교』, 『정도학연구』 15, pp.49-75.
- 7) 유성열(2012), 『지장보살신앙 연구: 전개양상과 의례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박사학위.
- 8) 김선주(2018), 『선도성모 수희불사의 형성 배경과 의미』, 『신라사학보』 43, pp.37-66.

II. 지장신앙의 개요와 말법사상

지장신앙은 바라문교의 지신(地神), 지모신(地母神), 지천(地天)에서 태동한 Prthivi가 원형으로 12天 가운데 하나이며, 범천(梵天)은 상방의 천공을, 지천은 하방의 대지를 수호하는 신이다. 재산을 불러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여신으로서 이미지가 언제부터인가 남성신으로 여겨졌다. 지장(地藏, Ksitigarbha)은 산스크리트어 대지(大地)를 나타내는 크시티(Ksiti)와 자궁(子宮), 태(胎)를 나타내는 가르바(garbha)의 합성어이다. 즉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생산해내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⁹⁾ 지장신앙은 비록 인도에서 싹트었지만 수·당 이후 중국에서 발전하고 한국과 일본을 거쳐 정착된 신앙이다.

후대로 갈수록 교리적인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져 조상숭배라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결합하여 특히 저승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장보살이 갖는 역할과 활동무대가 결코 단순하지 않은 않다. 석가모니로부터 미륵부처의 출현 시까지 무불시대를 책임지고 중생교화를 당부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다.¹⁰⁾ 거기에는 지장보살 자신의 본원과 석가모니의 부축이라는 중의성 책임이 동반된다. 그러한 광대한 임무는 다양한 지장신앙 형태를 낳았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당시의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타개책 혹은 방지책등으로 변모되어 신앙되어 왔다.

지장신앙의 소의경전은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이하 십륜경)』¹¹⁾ 『地裝菩薩本願經(이하 지장경)』¹²⁾ 『占察經』¹³⁾으로地藏三部經이라고 한다. 지장신앙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수나라에서 삼계교가 흥할 때 신행이 소의경전으로 삼던 失譯人名의 北涼本 『大方廣十輪經』¹⁴⁾이 유행하였다. 이를 구역이라 하고 이후 현장번역은 신역 『십륜경』이라 한다.¹⁵⁾ 지장신앙이 발전하는 단계는 사회불안 요소가 만연할 때이므로 말법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 구분되는 시대에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 그런 이유로 신라승 신방(神昉)이 구분이 있지만 신역을 쓰게 이유를 『大乘大集地藏十輪經書』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¹⁶⁾

신라의 지장신앙은 사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신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점찰신앙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독립된 보살신앙으로 발달시키지 못하고 현상이 7세기 중반 이후 한역한 『십륜경』이 유포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승불교의 보살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 8세기 대중신앙으로 자리 잡았다.¹⁷⁾ 그리고 그 시작점에 원광이 있다.

9) 眞鍋廣濟(1960), 『地藏菩薩の研究』, 三密堂書店, pp.2-3.

10) 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 譯 『地藏經』 分身集會品 第二 T13n0412, 779b

11) 唐 玄奘(602~664)譯 T13n0411. 『대방광십륜경』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역하였다.

12) 唐 實叉難陀(652~710)譯 T13n0412.

13) 隋 菩提燈(581~617)譯 T17n0839 『지장경』과 『점찰경』은 범본이 없이 중국 한역본만 전해지므로 위경이라는 설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14) 北涼 失譯人名今附錄(397~439) T13n0410.

15) 그 밖의 지장보살 관련 경전으로, 曇無讖譯 『大方等大集經』 권 57,58 『須彌藏分』, 不空譯 『百千頌大集經地藏菩薩請問法身讚』 1권, 善無畏·一行譯 『大日經』 4品, 輪婆伽羅譯 『地藏菩薩儀軌』 1권, 『佛說地藏菩薩陀羅尼經』 1권, 『地藏大道心驅策法』 1권, 『佛說地藏菩薩經』, 중국찬술 『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經』, 일본찬술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 등이 있다.

16) 『大乘大集地藏十輪經』 T13n0411, 777a 권 제1의 말미에 <序>가 첨부되어있다.

원광이 받아들인 지장사상 중의 하나는 그가 유학생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목도한 삼계교라는 지장신앙이다. 당시 수나라는 통일이라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불교신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민중 불교화를 주장한 신행(信行, 540~594)의 삼계교에 의한 지장신앙도 한 양상이었다.

삼계교는 세 단계의 불교적 시대구분에서 만들어진 민중종교로, 삼계라는 이름은 정법을 일계, 상법을 이계, 말법을 삼계라고 정하고 당시가 삼계의 시대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되었다. 말법시기가 되면 자기수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므로, 모두가 미래불임을 자각하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봉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보시를 통해 죄업을 소멸할 것을 강조하고 민중 구제활동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구호활동은 수·당이 들어서면서 국가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탄압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삼계교와 관련하여 말법사상이 유행하면서 수·당의 통일과정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추선과 공양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정토사상은 꾸준히 발전하게 된다. 염불과 관상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정토수행은 민중불교로 정착하게 되었다.¹⁷⁾

정토에 대한 바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수·당을 거쳐 중국에서 가장 민중들에게 친숙한 신앙이었다고 『법원주립』은 기록하고 있다.¹⁸⁾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했을 원광이 신라로 귀국하면서 삼계교가 중요하게 생각한 지장사상 관련 경전과, 그에 따른 신앙과 의식 등을 수용하여 전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처음 받아들인 지장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신라 최초의 고승이자 최고 학승인 원광을 통해 신라의 지장신앙 단면을 살펴보자.

III. 원광의 지장신앙 수용과 점찰수행

제1장. 『점찰경』의 지장신앙

중국에서의 지장신앙이 말법사상에 근거하여 민중신앙으로 편입된 반면, 신라에서의 지장신앙은 실천수행이라는 측면과 밀교의식 측면이라는 두 경로를 통해 수용·전개·발전을 거치며 정착하게 된다. 신라에서 처음 지장신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7세기 원광법사(542~630)로부터 보이는 실천수행 측면이다.

지장신앙 소의경전 중에서 『십륜경』²⁰⁾이 지장신앙의 근본 경전이라면 『점찰경』은 지장신

17) 김용덕(2013), 『지장신앙의 수용과 전승 양상』, 『한국어문화』제52. p.59.

18) 자 현(2018),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pp.263-267.

19) 정병조(1982), 위의 논문, p.329. 재인용.

20) 『십륜경』은 여러 경들 중에서도 지장사상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지장신앙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있다. 원광이 수나라에서 접했던 『십륜경』은 현장 신역본인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이 아니라 『대방광십륜경』이라는 실역의 북량본이다. 구역은 15품8권, 신역은 8품10권으로 이루어졌다. 구역에 번역자의 이름이 없는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

앙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근기수행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질에 따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응이나 영이와 같은 신비한 가피(加被)를 체험하는 여타 다른 지장신앙과는 포교수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점찰경』에는 실천수행과 지장보살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내용은 견정신보살(堅淨信菩薩)이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석가모니에게 말법시대의 근기가 둔하고 신심이 약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묻자, 석가모니가 지장보살이 대신 답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시 견정신보살은 석가에게 질문한 것을 왜 지장보살이 대답하게 하나냐는 물음에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비록 일체의 국토에 두루 노닐며 항상 공업(功業)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5탁(濁)의 악한 세상에서 교화하고 이롭게 함이 치우치게 도타운 것은 또한 본원의 힘을 의지하여 훈습하는 바이기 때문이요, 중생들이 교화하는 업을 받도록 해야 하는 원인 때문이니라. 그는 11겁을 지나오는 동안 이 세계를 장엄하였고, 중생들을 성숙시켜 왔다. 그런 까닭에 이 모인 안에서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위덕이 남달리 뛰어나서 오직 여래만을 제외하고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가 없으며,²¹⁾

즉 오탁악세리는 말법시대에 여래이외에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능력이 지장보살을 능가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장보살의 본원은 중생이 그를 이상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그를 본받아 중생 구제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고 더 이상의 의심이 없게 증명의 도장을 찍고 있음이다.

원광이 받아들인 지장신앙은 그러한 실천적이며 여래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지장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실천력이 지장신앙을 낳게 하고 점찰보라는 형태의 실천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장보살은 단순히 중생을 위한 구제의 노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선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돌리겠다는 회향이라는 보살상을 추구하며,²²⁾ 회향은 더 나아가 선근공덕을 통해 좋은 과보를 기대하거나 얻으려 하는 것을 넘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자신의 수행을 힘써 여래로 가는 길, 즉 여래장을 제시하고 있다.²³⁾

삼가 바라옵건대 시방의 크게 자비하고 높으신 모든 분이시여, 증명하여 아시어 보호하고 염려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저와 일체 중생들은 한량없이 많은 겁 이래로 10악(惡)·4중(重)·5역(逆)의 뒤바뀐과 삼보(三寶)를 헐뜯었던 일천제(一闡提)의 죄를 속히 없애지게 하여 주옵소서.²⁴⁾

지장신앙은 지장보살의 거듭되는 본원력을 통해 구제되는 힘에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점찰경』의 핵심은 철저한 인과응보의 인과율에 근거하여 죄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21) 『점찰경』 1권(K0421 v13, p.657c01)

22) 김태훈(2010), 『한국 지장신앙의 사상적 연원』, 『한국종교』 34, 원광대학교, p.210.

23) 박미선(2007), 『『占察經』의 成立과 그 思想』, 『역사와실학』, 32, p.267.

24) 『점찰경』 1권(K0421 v13, p.660b01)

실천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비록 일천제의 죄업을 없애달라고 예기하지만 거기에는 참회실천의 의지와 약속이 선행되고 있다. 지장보살의 구원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장보살과 같은 여래장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광의 실천수행 수단이었던 점찰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찾는 것인지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을 장애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목륜상(木輪相)의 법을 써서 지난 세상에 지었던 선악(善惡)의 업과 현재의 고탐(苦樂)과 길흉 등의 일을 점을 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합해지기 때문에 존재하며, 조건이 사라지면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업이 모이면 마음을 따라 서로 나타나 과보가 일어나는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알아 선과 악의 업보(業報)를 점쳐서 제 마음을 밝게 깨달아 알고 의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시원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제자라면 다만 이와 같은 상법(相法)만을 학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야 할 것이니, 관찰할 대상의 일은 진실로 모두 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서 도리어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따르고 좇아서 갖가지 길하고 흉한 따위의 일을 점쳐 보는 일을 탐하여 집착하거나 익히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즐겨 익히는 이가 있으면 거룩한 도에 깊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²⁵⁾

석가모니 사후 가르침이나 실천, 깨달음이 남아 있는 정법의 천년이 끝나면, 교리와 수행만이 남은 상법의 천년이 이어지지만, 이어서 오는 세상은 오탁악세에 물들고 수행하는 사람도 깨달은 이도 없어지고 단지 교설만 남게 되는 말법시대가 도래한다. 그때는 중생은 수행하려 들지도 않고 오로지 점이나 무당을 찾아 샅된 의견에 쫓리게 되니 이를 경계하여占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옳은 수행에 전념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구체적인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에서는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륜상을 만들어 앞뒤로 10선과 10악을 구분하여 쓴 다음 던져서 점을 치기 전에 불법승 삼보께 예를 올리고 지장보살에게 경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점찰법회는 『점찰경』에 의거하고 『점찰경』은 지장보살에게 참회하는 일종의 방법과 그 과정이다. 그러므로 원광이 점찰보를 열었다는 것은, 그가 지장신앙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전의 참회방법은 사실 일반 대중이 매일 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수행이다. 업이 모여 마음을 따라 그 결과가 일어나는 선업선과의 교리를 대승 차원에서 일반백성이 수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학식이 요구된다. 그것은 상이라는 학습을 취한자만이 알 수 있는 교리에 해당한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단순한 길흉을 알고자 무당을 찾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이다. 만약 점찰이 쉬운 방법이었다면 굳이 무속의 힘을 빌지 말라고 당부하거나 장애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 당연히 따로 마음을 붙잡아 매어 나 지장보살마하살을 공양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마땅히 명호를 부르거나 혹은 묵묵히 송념(誦念)하면서 일심으로 말하기를, ‘지장보살마하살에게

25) 『점찰경』 1권(K0421 v13, p.658a01-p.657a01)

귀의 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명호를 부르면서 천 번을 채우고, 천 번 염하기를 마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마하살은 대자(大慈)하시고 대비(大悲)하십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저 일체 중생들을 보호하고 염려하시어 속히 모든 장애를 없애 주고 깨끗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지금 관(觀)하는 바가 진실에 꼭 맞고 서로 호응하게 하시옵소서.’²⁶⁾

점찰참회는 마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다는 보물을 찾아 험한 산을 오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내자가 신통으로 쉴 수 있는 성을 만들어 내는 것과²⁷⁾ 같은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지장보살을 간절히 염원하며 부르게 하는 것은 안내자를 의지하게 하여 수행을 멈추는 자들을 위한 방편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스승에 해당하는 지장보살이 석가모니를 대신하여 건성신보살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원광은 바로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7세기 신라에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장. 원광의 점찰수행

초창기 신라 지장신앙은 구역 『십륜경』보다 『점찰경』이 우세하게 수용되었던 듯하다. 이는 수나라 유학 시(589~600) 접했던 삼계교의 수행법과 『점찰경』이 신라로 수용되면서 전개된 점찰보(占察寶)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원광법사는 수나라에서 명성을 떨치던 차에 신라왕의 부름을 받고 황제의 허락 하에 진평왕 22년에 귀국하였다.²⁸⁾ 유학을 다녀온 학승이 고국에 돌아와 가장 펼치고자 하는 세계는 자신의 생각이 농축되어 있는 사상일 것이다. 원광법사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실천위주의 『점찰경』을 근거로 진(陳)·수(隋)나라 유학 후 점찰보를 설치하여 점찰법회를 유행시켰다. 원광이 행한 점찰보에 대해 기록을 보자.

원종이 불법을 부흥시킨 이래 비로소 다리를 놓은 것이 되었으나, 깊은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귀계멸참(歸戒滅懺)하는 법으로 우매한 이를 깨우쳤던 것이다. 그래서 원광이 머물던 가사집에 점찰보를 두어 항규(恒規)로 삼았으며 그때 단월니(檀越尼)가 있어서 발을 점찰에 헌납했으니 지금 동평군에 있는 발 1백결이 그것이다. 옛날 문서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²⁹⁾

위의 기록을 보면 점찰보라는 것은 불교에 귀의하며 괴로움을 없애고 참회하는 행사이면서 이를 모여 실천하기 위하여 보(寶)라는 경제적 시주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신도가 발을 보시한 것을 바탕으로 신행을 이어가는 것이 당시 점찰보였던 것이다. 시주된 재산은 증식을 하여 계속된 신행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는 후에 염불계, 사찰계, 지장계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³⁰⁾

26) 『점찰경』 1권(K0421 v13, p.659a01)

27) 『법화경』 제3권 제7품 「화성유품」

28) 신중원(1998), 『신라 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p. 81, <표1> 참조.

29)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원광서학」

30) 홍재성(2011), 「地藏思想과 三界敎」, 『정토학연구』 15, pp.68~69.

그런데 여기서는 지장신앙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지장경』에서와 같이 지장보살의 비원이나 인연, 위신력에 의한 복을 구하는 범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와 같은 구복적인 지장신앙은 대승불교의 보살로 자리 잡은 7세기 중반이다. 그러나 『점찰경』과 더불어 북량본 『대방광십륜경』이 삼계교를 중심으로 수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을 원광은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원광은 지장보살의 기본 설정인 비원의 대승보살로서 중생구원의 초점에 맞춘 신앙이 아닌 왜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점찰신앙을 들여왔을까.

이는 다분히 지장보살의 구도자적인 자세에 원광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업력에 의해 타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 자력으로 지옥을 향하며, 그곳을 교화의 장으로 여겨 중생제도의 도량으로 선택한 지장보살의 수도승의 이미지를 원광은 취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안내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지장보살은 거둬된 서원의 실천을 위하여 원력을 다하지만 중생들은 망상과 아집에 사로잡혀 놓아준 물고기가 다시 그물에 걸리듯 윤회를 반복한다.³¹⁾ 원광은 지장보살의 거둬된 서원과 구제대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민중불교로서의 지장신앙이 아니라 승려를 중심으로 하는 참회수행을 의도적으로 들여왔음을 의미한다. 그가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토속종교와 불교를 제외한 모든 학문에 통달했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났다. 원광의 학구적이고 이지적인 면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을 보자.

처음 장엄사 민공 제자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본래 세전을 잘 알아 유교의 진리가 신묘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교 강론을 듣게 되자, 도리어 자신이 찍은 지푸라기 같았다. 그는 헛되이 명교만 찾다가는 실로 생애가 우려스럽다 여기고, 진나라 왕에게 아뢰어 불법에 귀의할 것을 청하니 진왕이 칙명으로 허락하였다. 그는 승려가 되어 곧 구계를 받고, 도량을 두루 찾아다니며, 훌륭한 도리의 연구에 진력하며 묘법을 알기에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³²⁾

원광은 애초 승려로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학문탐구의 목적을 가지고 진나라 유학을 떠났다. 신라 땅에서 그를 능가할 석학이 없음을 알고 떠난 새로운 학문의 세계, 즉 불교를 만나게 된다. 그가 만난 불교는 지극히 교학적인 불교였다. 귀국 후 고구려 정벌을 위해 결사표(乞師表)를 짓는 장면은³³⁾ 원광의 구도자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구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승려로서도 중요하지만 원광도 신라 백성의 한 일원이었던 것이다. 원광이 세속오계를 지은 후 신라 불교를 호국불교로 인식하는 사상과는 다소 다른 일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광이 단지 왕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충실한 의무감에서 결사표를 지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점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군주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3세의 과보인 선과 악의 상에는 189종이 있는데, 116은 군주와 인민들이 악하여 굶주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7은 군주와 인민들이 악하여 질병이 많은 것이며, 118은 군주와 인

31) 『지장보살본원경』 제4품 「엄부중생업감품」

32)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원광서학」

33)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

민이 착하여 나라가 풍요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119는 군주가 무도(無道)하여 나라에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며, 120은 군주가 덕을 닦아 재앙과 난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21은 군주가 악을 행하여 나라가 장차 망하는 것이며, 122는 군주가 선을 닦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중략, 이것을 이름하여 189종의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의 차별상(差別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³⁴⁾

나라가 다시 세워져 만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군주가 선을 닦는 것, 즉 수행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광이 결사표를 지은 데는 이러한 『점찰경』 근거에 의한 호국사상이 작용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국난타개를 위해 수나라 사신이 왔을 때 황룡사에서 백고좌강연³⁵⁾을 열면서 그 자리에 원광법사 등을 모셔 경전을 강의하게 하였다.³⁶⁾ 『인왕경』 「호국품」에 의거하여 법회가 열렸으므로 원광의 불교의식 또한 호국사상이 투철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삼국사기』 기록에서 보듯이 승려로서의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으며 그 타개책으로 호국사상이 이입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나라 사신이 참석한 백고좌의 자리는 『인왕경』³⁷⁾이 설해졌을 터, 그때 설해진 인왕경은 구마라집의 밀교적 요소가 첨가되지 않은 구역이었다. 구역은 『인왕경』을 잘 간직한 국가의 공덕을 설하고 있지만, 주술적인 의식보다는 이 경을 강의함으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실천수행적인 데 더 비중을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³⁸⁾ 다시 한 번 그의 관심은 실천수행과 안내자인 스승의 역할이라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스승의 위치에서 왕에게 계를 내리는데, 보살계는 계율과 참회를 병행하는 의식으로 양무제가 혜약(慧約)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전통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적 전통은 원광이 유학한 진나라로 이어졌고 수나라 통일 후 수문제가 보살계를 받는 과정을 원광은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접한 그의 유학기의 경험은 귀국 후 참회수행의 근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학 중 불교의 이론철학을 철저히 궁구하여 陳에서 『성실론』³⁹⁾, 『반야경』의的空학을, 隋에서 섭론종(攝論宗)⁴⁰⁾의 유식학을 익혀 그 미묘함을 명석하게 푸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채로 신라로 귀국했다.⁴¹⁾ 섭론은 삼라만상은 결국 유심(唯心)에 돌아간다는 이론과 이에 의한 종교적인 실천을 설하는 학문으로, 원광의 실천 수행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4) 『점찰경』1권(K0421 v13, p.662-664b01)

35) 『삼국사기』권44 열전 「거칠부」: 백고좌강연회란 백 명의 승려를 초청하여 국가안위를 위한 『인왕경』 법회를 여는 것으로, 진흥왕대에 거칠부가 데려온 고구려 혜량이 처음 개최 하였다.

36)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

37) 『인왕경』은 구마리집 한역(401)본과, 불공(不空) 한역(765)본이 전한다. 전자를 구역, 후자를 신역이라하고 신역은 밀교적 요소를 도입하여 다라니(진언)등을 삼입하여 부처의 강력한 힘을 기대하는 것이다.

38) 신종원, 위의 책. pp.101-102.

39) 『성실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은 허상인 假로 존재하므로 결국 空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려 苦·集·滅·道 사제의 뜻을 깨닫고 八聖道에 의해 번뇌를 여의고 열반에 이른다는 사상이다.

40) 섭론종은 4세기 인도의 아상가(무착)가 지은 『섭대승론』을 근본으로, 양나라 진제가 번역 한 후 성립된 종이다. 10가지 주제를 들어 대승의 교리가 소승보다 뛰어난 이유를 논한다.

41)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원광서학」

원광법사가 행했다는 점찰보는 경전에서와 같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위주로 하는 실천행이다. 이시기는 신라의 초기불교시대이며, 일반인이 목륜을 만들어 10악과 10선의 업으로 삶을 성찰하기에는 실로 어려운 이론이다. 그러므로 승려를 중심으로 하는 참회와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모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실천행은 가서사에 자리 잡은 후 귀산과 추항에게 이원적으로 계법을 설명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에게는 신하로서 지켜할 세속오계를 설하면서 자신은 보살계 수행을 실천하였다.⁴²⁾

그렇다면 원광은 점찰보와 점찰수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졌던 것인가? 당시 『점찰경』에 의거하여 남녀가 어울려 몸이 부서질 정도로 참회하는 탑참법(塔讖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수나라 조정에서는 법경(法經)스님 등에게 그 진위를 물었다. 위경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자, 경전과 모임을 금지시켰고, 원광이 귀국하던 해(593)에 삼계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점찰법회에 대한 탄압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도하면서, 원광은 삼계교의 수행실천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였을 것이다. 원광이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거나 자세히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 돌아온 후 『점찰경』의 위경여부에 상관없이 점찰 신앙의 실천성에 고무되었던 것 같다. 그가 신라에서 점찰보를 행한 이유는 그의 교학적 실천의지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는 이미 진흥왕대에 사찰 건립, 승직창설 사리 및 불교전적의 수입 등 불교가 점차 신라사회에 뿌리내리고 많은 승려가 배출되었다.⁴³⁾ 그러나 일부 승려 이외에 유학을 통해 고도의 불교교학을 충분하게 인지의 승려는 드물었다. 때문에 점찰신앙 즉 지장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점복(占卜)이라는 형식을 빌려와 다른 수행자들에게 쉽게 인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겨진다.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과 악을 점친다는 행위는 다분히 사면적인 경향을 띤다. 그러나 점복이 단순히 길흉화복을 예견하는 것과 달리, 점찰은 결과에 대해 참회하고 앞으로 선업을 닦을 것을 다짐한다. 중국에는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로서 원광은 그 사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만약 점찰법회가 일반대중을 위한 형식이었다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위하여 어려운 참회의 방법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속고승전』⁴⁴⁾에 보이는 원광의 제자 원안(圓安)의 전기를 통해서도 원광의 실천적 면모를 유추할 수 있다. 비록 그에 관한 행적이 소상하지 않아서 원광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안은 경(經)과 론(論)에 통달하고 삼계교에 깊이 개입된 승려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스승인 원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승려들의 신행 수단으로 점찰수행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 그의 점찰신앙이 결코 대중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점으로, 점찰보를 열었던 위치로써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곳은 경주가 아니라 오늘날의 청도 운문사에서 5킬로미터 거리인 문복산 기슭의 가서사(가솔사, 가솔잡사)⁴⁵⁾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신라 최고의 승

42) 김두진(2004), 『원광의 계참회 신앙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p.64.

43) 『삼국사기』 권4 『진흥왕』조.

44) 『속고승전』 K1075 『원광』, 『원안』조.

45) 가서사는 귀산과 추항이 원광을 찾아와 세속오계를 설한 곳이다. 그는 귀국 후 호국활동을 할 시기는 왕경 즉 경주에서 생활하다가 후반기에는 가서사에서 주석하였다.

려로서 진평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왜 경주에서 거리가 있고 사람도 많지 않은 산중의 가서사에서 점찰보를 열었을까. 대중화를 위한 법회라면 왕경에서 베풀어야 많은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미 왕실에서는 사신(捨身)의 경험⁴⁶⁾이 있었으며 당시의 진평왕은 강한 호불군주이다. 그렇다면 왕경에서 점찰법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자문가로서 경주에서 활동하면서도 늘 구도자로서의 실천수행을 하고자하였다는 점이다. 『점찰경』에서는 참회수행을 하는 자가 있어야할 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선남자야, 선남자여, 참회의 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고요한 곳에 머물러 힘의 능력을 따라 방 하나를 장엄하여 꾸미고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경전을 놓아두고 비단으로 만든 번기와 일산을 걸어 두며, 향과 꽃을 구해 모아서 공양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깨끗이 빨아 입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이 방 안에 있으면서 하루 세 때에 명호를 부르되 일심(一心)으로 과거의 7불과 53불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며,

원광은 『점찰경』에서 요구하는 수행처를 간절히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경주에서는 그가 원하는 점찰수행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었을 수밖에 없다. 번잡하고 늘 정사에 관여했던 그였으므로 고요한 수행처를 원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자.

원광의 성품이 겸허하고 인정이 박애로워 말할 때는 항상 미소를 띠고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전문·표문·장계·사서(牋表啓書) 등 국가에서 오가는 문장은 모두 그의 흉금에서 우러나는 것이었으니, 세상 모두가 받들었고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맡기며, 도덕으로 교화함에는 언제나 자문 하였다. 사실은 벼슬로 금의환향한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사람이나 다름 없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훈을 펴서 지금까지도 모범이 되고 있다.⁴⁷⁾

위의 기사에 의하면 원광은 승려이기 이전에 정치가, 문장가, 교육자로 보인다. 그의 할 일 가운데 기회가 날 때만 승려로서 강론을 펼치고 있다. 원광은 실천수행 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의 표현에는 그만큼 시간부족에 시달렸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유학 전 이미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학자였고, 불교학을 배운 이후에는 삼장에 정통했던 학승이었다. 그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론을 하여 학문의 세계를 신라 땅에 펼치려던 굳이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주를 떠나 가서사에 들어가 점찰보를 열었다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교학이 점찰에 의거한 강의였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이유라면 당시 최고 석학인 원광의 가서사 행이 설명될 것이다.

또 하나는,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며 왕이 직접 시중을 들었던 위치에 있던 엘리트였다.

46)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7년.

47) 『삼국유사』 4권 의해 제 5 『원광서학』

그가 누린 지위는 정사를 돌보는 사람이거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신앙을 숭상한 정치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지명스님이 귀국하여 계행을 존경하여 대덕으로 삼고⁴⁸⁾ 담육 스님과 같은 해외파 유학승들이 귀국하여⁴⁹⁾ 불교가 융성하여 졌지만 토착신앙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신라 땅에 완전한 불교화가 이루어졌다면 원광은 점찰수행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수이전』을 인용한 『삼국유사』의 기사에는 그가 경주사람으로 처음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우다가 삼기산(三岐山)⁵⁰⁾에서 수도 중 3천살이 된 산신을 만난 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원광이 불법을 알기 전에는 토착신앙을 믿고 따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가 불법을 배워 펼치기 위해서는 산악신앙과의 마찰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리 산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음을 『삼국유사』 기사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원광이 수나라에서 돌아온 후에는 삼기산의 신을 다시 찾아 예를 올리는 것으로 그 전후 상황이 짐작된다. 삼기산에 찾아와 과거 자신을 유학의 길로 이끌었던 산신에게 보살계를 내리는 장면은 드디어 토착신앙과 불교의 습합임을 보여준다.⁵¹⁾ 다만 여기에는 위계상 불교가 산신의 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는 단계의식으로 볼 수 있다.

원광이 점찰보를 열었다는 가사사가 있는 문복산이나, 산신의 보호와 중국유학의 권유가 있었다는 삼기산은 경주와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깊은 첩첩산중에 위치한다. 이는 경주의 토착신앙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귀족과 왕실 위주로 신앙되던 신라불교가 아직 대중불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원광이 행한 점찰참회라는 것이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겐 힘든 수행이었다고 보여진다. 점찰보에 보시자가 등장하고 대중법회를 열었다 해서 점찰수행이 대중화되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원광이 활동하던 시기는 6~7세기로 경전수행의 단계이다.⁵²⁾ 높은 사상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최고 위치에 있는 고승이며 석학인 원광이 주최하는 일시적인 혹은 특별한 점찰법회에 사부대중이 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철저한 자기수행을 위한 점찰수행은 이후 진표에 이르러 철저한 자기 성찰과 구도 정신에 입각한 혹독한 고행으로 발전되고 이어진다. 진표가 행한 실천수행의 초기 모습이 원광의 신행에서 비롯된 수행법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점찰수행은 승려 중심에서 점차 대중화로 확산되는데, 『삼국유사』 <성모수회불사>조를 통해 점찰법회의 대중화가 확인된다.

48) 『삼국사기』 진평왕 24년

49) 『삼국사기』 진평왕 27년

50) 현재 삼기산의 금곡사에는 원광법사의 부도라고 알려진 9세기 이후의 탑 1기가 전해진다.

51) 김호동(2005), 『원광을 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습합과정』, 『신라사학보』3, p.35.

52) 정병조(1981), 『원광의 보살계 사상』, 『한국고대문화와 인접 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43-45.

IV. 지혜스님의 점찰법회의 의미

원광이 수용한 신라 지장신앙은 이후 진평왕 대의 지혜라는 비구니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대중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발전된 양상으로 점찰법회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선도산(仙桃山) 신모(神母)이다. 그대가 불전을 지으려 하는 것이 것이 기뻐서 금10근을 시주하여 돕기를 원하니, 마땅히 내 앉은 자리 밑에서 금을 가져다 주존삼상(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에는 53불과 여섯 성중(六類聖衆)과 여러 천신과 오악신군(五岳神君)을 그리고, 봄·가을 두 차례 10일간 선남선녀를 모아 널리 중생을 위하여 점찰법회를 여는 것을 상례로 삼도록 하라⁵³⁾

안흥사(安興寺)의 비구니 지혜스님은 신라의 경주 서악의 선도산 신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삼존불을 조성하고 매년 봄·가을 점찰법회를 열어, 선남선녀를 지장신앙으로 인도하고 참회와 죄 소멸을 도모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몇 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구니인 지혜스님이 점찰법회를 열어 재가신도를 이끌었다는 것, 성산(聖山)인 산신으로부터 현몽을 받아서 불사를 하였다는 것, 땅속에서 얻은 금으로 삼존불을 조성한 것, 삼존불과 53불, 여섯 성중, 천신, 오악신군을 모시고, 선남선녀를 모아 점찰법회를 열어 상례로 삼는 것이다. 지혜스님과 안흥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외에 어느 사료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⁵⁴⁾ 그러나 스님이 행한 점찰참회가 진평왕대의 원광에 의해서 설해지고 원광은 그 시기 최고승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영향에 따라 많은 승려들이 점찰법을 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지혜스님의 법사 역할이다. 원광은 왕에게 계를 내리고 말년에는 수레를 타고 왕궁을 드나들며 옷과 약, 음식을 왕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당시 최고의 법사이다. 그런 수승한 고승이 개최하는 점찰법회를 알려지지 않은 한 비구니가 법사가 되어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평왕 22년에 원광이 수나라에서 돌아온 후 입적하는 52년의 약 30여 년 동안에 『점찰경』에 의한 지장신앙이 경주를 중심으로도 넓게 퍼지면서 비구니도 법사로서 점찰법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지혜스님이 불사를 일으킨 곳은 경주가 흔히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산자락이다. 이곳은 중국 황제의 딸이 솔개가 되어 내려앉아 살며 지선(地仙)이 되었다는 전설을 품은 신성한 땅이다.⁵⁵⁾ 중국 황제의 딸이라는 신분과, 대지의 여신인 지장(地藏), 그리고 지선의 관계가 지혜라는 비구니 법사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실이었던 땅의 신, 지장보살, 그리고 현재의 지혜 비구니로 이어지는 관계는 선남선녀를 모아 여는 대중 점찰법회에 맞춤형인 설정이다. 드디어 지장신앙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53) 『삼국유사』 5권 감통 「선도성모 수회불사」

54) 김선주, 위의 논문, p.42.

55) 『삼국유사』 5권 감통 「선도성모 수회불사」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점찰법회를 주최하는 지혜스님에 대해 대중들은 법사로써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점찰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사 비구니에 대해 살펴보자.

만일 사미니의 나이 이미 18살이면 또한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비니장 중 식차마나(式叉摩那)⁵⁴의 여섯 가지 계법(戒法)을 받아야 하며, 비구니의 일체 계취(戒聚)를 두루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나이가 만일 20살이 찰 때에는 위와 같은 보살의 3취 정계를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런 연후에야 비구니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중생이 비록 참회를 배운다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이 아니어서 선한 상(相: 輪相)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면, 설사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율을 얻었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⁵⁵

『점찰경』에서는 비구니가 되려는 자는 사미니계를 수지하고도 식차마나니계⁵⁷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계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갖추어 얻은 것이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비구·비구니라 하고, 그 전단계인 사미, 사미니가 지켜야 할 별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은 이를 스승으로 삼아 법대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법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법회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공표하는 것이다. 지혜스님은 능력을 증명 받았기 때문에 현몽으로 불사를 부탁받은 것으로 대중에게 알렸을 것이다. 불상도 독존이 아닌 삼존불을 조성하는데 신모가 앉아있는 땅으로부터 금을 캐서 얻게 되는 설정이다. 이는 땅속에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는 지신, 즉 지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선 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장을 포함한 삼존상은 당연히 지장에게 부촉하는 석가모니와 미래세에 오게 될 미륵부처까지 삼존상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다만 이시기에 ‘지장화상법’⁵⁸이 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보살상이 조성되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역을하게 죽은 백제 성왕의 발원으로 지장보살이 직접 불상조각장으로 몸을 나투어 자신의 모습을 조성했다는 설화가 딸린 불상이 일본에 전해졌다⁵⁹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신라에도 지장보살상 조성법이 전해졌으리라 짐작된다. 때문에 지혜스님이 조성한 삼존불은 그가 현몽으로 본 석가·지장·미륵으로 연결되는 부촉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⁰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이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딸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덕만은 신라에 내려온 미륵선화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미륵이 도래하는 세상은 전륜성왕이 등장하는 시대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전륜왕이 될 여성과 토착세력의 반대가 가장 강한 왕경의 선도산에서 활동하는 선구자격인 비구니의 조합은 신세계를 설계하는 진평왕 후대의 역사적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선남선녀를 모아 대중 법회를 열기는

56) 『점찰경』 1권(K0421 v13, p.661c01-p.662c01)

57)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는 식차마나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계(戒)를 의미하며 음행(淫行)하지 않음, 훔치지 않음, 살생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술 마시지 않음, 끼니때가 아니면 먹지 않음의 여섯 가지입니다. 원래 가임기 여성이 출가하는 것에 대한 검사로 시작되었다가 오늘날은 성차별로 여겨져 문제시 되고 있는 과정이다.

58) 8세기 의림이 입당하여 선무외로부터 현밀 수학을 하면서 ‘지장화상법’을 배우게 된다.

59) 『일본서기』 민달천황 6년(577) 10월 조

60) 신종원(2019), 『삼국유사 깊이읽기』, 주류성, p.141.

했으되 53불을 그리라 했음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남순 구도행각을 하는 것을 비유한바, 점찰법회가 대중화를 띠면서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승려들이 할 수 있는 신행과 대중이 할 수 있는 신행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원광이 실천하였던 참법이나 예참보다는 삼존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여신을 상징하는 지장신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확산의 수단은 많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점찰법회와 왕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이다. 지혜스님의 삼존은 그러한 지장신앙의 체계에서 조성되고 미륵으로 등장할 덕만의 왕위계승을 위한 포석이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신라에 미륵신앙이 확산되는 상황과 진표가 지장보살이 아니라 최후에는 미륵신앙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진표간자’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선도산의 수회불사>는 지장보살의 끝없는 중생구제를 위한 구도자와 같이 지혜스님이 신모로부터 부탁받아 지장보살의 역할을 경주 땅에 미륵이 오는 날까지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선도산 마애불로 명명된 삼존상이 지혜스님이 조성한 삼존불일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원광과 함께 『점찰경』이 신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장신앙이 신라 땅에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 원광법사는 남조의 진나라와 수나라 유학을 하면서 남·북조의 교학불교를 공부하여 수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신라 최초의 고승이다. 왕의 부름으로 귀국 후 정사를 돌보면서 신라 최고의 고승대덕이 되었다. 그런 그가 경주에서 떨어진 가서사에 주석하면서 교학적인 불교가 아닌 철저한 실천수행인 점찰보를 결성하고 지장보살을 예참하여 점찰법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장신앙을 발현시켰다. 그러나 왕에게 계를 주는 불법을 펼치면서도, 경주에서 거리를 갖고 점찰보를 열었음은 그가 구도자적인 지장보살의 특징에 매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경주 토착신앙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원광이 펼친 점찰보는 대상에 있어 외연을 넓힌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점찰이라는 수행 자체가 일반백성은 하기 힘든 참회실천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광이 발현시킨 지장신앙은 진평왕 대에 경주에서도 토착산악신앙이 강한 선도산에서 신모의 도움으로 땅에서 찾은 금으로 삼존불을 조성하며 지혜라는 비구니에 의해서 대중화 된다고 여겨진다. 산신의 현몽으로 땅에서 금을 얻었다는 설정은, 모든 것을 품고 내준다는 지장의 원래 뜻을 내포하므로, 지혜스님이 신모로부터 얻은 금은 즉 지장신앙의 대중화 혹은 확산을 의미한다. 한편 앞으로 군주가 될 덕만을 반대하는 토착세력의 저항에 대비한 이미지 창조 수단으로 점찰법회를 열어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장신앙은 대지의 여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토착 산악신앙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점찰법회는 『점찰경』을 근거로 지장보살을 예참하며 지장보살께 귀의하여 모든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신앙이다. 신라의 초기 지장신앙은 근기수행으로, 죄를 참회

하고 뉘우치며 자신에게 내재되어있는 여래장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원광은 그러한 구도자 이미지가 강한 성문승으로서의 지장보살을 예경하는 신라 최초의 지장신앙자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점찰경』에 의한 신라 점찰의 지장신앙은, 원광이 발현시키고 경주 땅에서 비구니가 주도하는 점찰법회에 민간신앙을 포용하여 확대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지의 신에서 시작한 지장보살이 결국 땅에서 얻어진 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설정된 것은 지장보살이 민중 속으로 친숙하게 스며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삼국유사』
- 『삼국사기』
- 『일본서기』
- 『해동고승전』
- 『속고승전』
- 『지장보살본원경』
- 『대방광십륜경』
- 『점찰선악업보경』
- 『대승대집지장십륜경』
- 『묘법연화경』

- 김두진(2004), 『원광의 계참회 신앙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pp.51-93.
- 김선주(2018), 『선도성모 수희불사의 형성 배경과 의미』, 『신라사학보』 43, pp.,37-66.
- 김영태(1972),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 연구』, 『불교학보』 9, pp.99-136.
- 김용덕(2013), 『지장신앙의 수용과 전승 양상』, 『한국어어문화』 제52, pp.58-79
- 김복순(2006),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 28, pp.255-278.
- 김태훈(2010), 『한국 지장신앙의 사상적 연원』, 『한국종교』 34, 원광대학교, pp. 203-232.
- 김호동(2005), 『원광을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습합과정』, 『신라사학보』 3, pp.21-45.
- 박미선(2007), 『『占察經』의 成立과 그 思想』, 『역사와실학』 32, pp.247-274.
- 박광연(2002), 『원광(圓光)의 점찰법회(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43, pp.111-140.
- 신종원(1992),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초기불교사 연구』, 민족사, pp.149-171.
- 조수동(2014), 『원광의 호국정신과 불교』, 『철학논총』 75, pp.475-499.
- 정병조(1982), 『신라시대지장신행의연구』, 『불교학보』 19,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pp.327-344.
- _____(1983), 『신라법회의식의 사상적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 pp.125-137
- 홍재성(2011), 『地藏思想과 삼계교』, 『정토학연구』 15, pp.49-75.
- 무통(2012), 『지장보살신앙 연구』, 해조음.
- 신종원(1998), 『신라 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 _____(2019), 『삼국유사 깊이읽기』, 주류성.
- 자현(2018),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 眞鍋廣濟(1960), 『地藏菩薩의 研究』, 三密堂書店.

【 논문초록 】

<p>키워드 (Key words)</p>	<p>점찰법회, 원광법사, 점찰보, 신라불교, 지장신앙. Wonkwangbupsa, Jeomchal dhamma talking, Buddhism of Silla, Ksitigarbha belief, Seondosan sinmo.</p>
<p style="text-align: center;">Aspect of Early Sila's Ksitigarbha belief through the Jeomchal</p> <p style="text-align: right;">Lee, Kyong-Ran</p> <p>Wonkwangbupsa is the first ancient monk of Silla to achieve fame in the Sui Dynasty by studying the doctrine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while studying abroad in the Qin and the Su Dynasties.</p> <p>After returning to Silla at the king's call, he became Silla's greatest monk by taking care of the country's affairs. He gave an annotation to Geoseosa, which fell in Gyeongju, and created a Jeomchabo, a thorough practice, rather than a doctrinaire Buddhism, and held a Ksitigarbha belief assembly in honor of the Ksitigarbha belief. But while committing the illegal act of giving a king a royal line, he took his distance from the race and opened his fortune-telling book, which means he was fascin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fashioned Ksitigarbha belief. On the other hand, it also means that the conflict with Gyeongju's indigenous religion has not been resolved amicably. It is true that Wonkwang's fortune-telling in the wine of royal and aristocratic beliefs has expanded its scope, but it has not been linked to popularization. This is because the practice of divination itself is a penultimate practice that the general public cannot afford.</p> <p>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Ksitigarbha belief, which was developed by Wonkwang, was popularized by the Ksitigarbha belief,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spirit of wisdom, with the help of Shin in the Jinpyeong Dynasty, Gyeongju, where Wonkwang was active, and with the help of his mother, the gold found on the ground.</p> <p>"Gold obtained from the earth implie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earth to bear and give away everything, so that the gold obtained from the Divine Mother means the popularization or spread of Jijiang belief."</p> <p>Silla's early Jijiang creed is the process of repenting and repenting for his sins and visiting the rest of his innate lair, and Wonkwang is the first Ksitigarbha believer to foretell Ksitigarbha belief as a seongmunseung with such a strong image of the archangel.</p>	
<p>필자 인적사항</p>	<p>성명(한글): 이경란 (한자): 李京蘭 (영문): Lee, Kyong-Ran 국문제목: 점찰수행을 통해 본 신라 초기 지장신앙 양상 영문제목: Aspect of Early Sila's Ksitigarbha belief through the Jeomchal 소속: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 E-mail: leekim0627@daum.net</p>
<p>논문작성 일시</p>	<p>투고일 : 2019. 11. 12. 심사일 : 2019. 12. 02. 심사완료일 : 2019. 12. 10.</p>